

전남교육청, 공립사립교 지정

첫번째로 지정된 '영암여자고등학교' 시범 운영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사업 본격 추진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암여자고등학교' (이하 '영암여고')를 첫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했다.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13개 과제 중 핵심사업이다.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영암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 간 대규모 시

설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감면하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추천이사 2명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는 12월 이후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현주 학교지원과장은 "처음 도입된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에 용기 있는 결단으로 참여해 준 동아학원 법인 관계자와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학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은 13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를 핵심으로 △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영철레 운영 △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 △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웅천초, '외국어 Festival' 개최... 꿈과 끼 펼쳐



여수시 웅천초등학교는 외국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치는 외국어 Festival을 진행하였다.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약 700명이 참여한 외국어 Festival은 지금까지 학습한 영어나 중국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발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4~6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

어 영어와 중국어 중 하나의 언어를 골라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며 춤추기, 문화 소개하기, 전 세계적 인 문체에 대해 발표하기, 연극하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연습하여 발표하였다. 외국어 Festival은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되며 예선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며 각 학급에서 진행되었다. 예선은 학급별로 모든 학생들의 발표를

감상하고 난 뒤 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하여 본선에 올라갈 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은 학년별로 모든 학생들이 모여 학급별 예선에서 뽑힌 팀들의 발표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외국어를 활용하여 발표를 하니 뿌듯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 함께 외국어 Festival을 준비하는 과정도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내년에 있을 외국어 Festival을 위해 평소에 열심히 영어와 중국어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정귀남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보여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외국어 Festival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학습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과 함께하는 문학·예술체험 및 스포츠 관람

장흥용산중학교는 지난 12, 13일 '2019.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문학·예술체험 및 스포츠 관람(농구)'을 진행하였다. 이는 작년 '2018. 문화·예술체험 및 스포츠 관람(배구)'에 이은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활동이었다.



사진들은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전 좌석 매진의 전주실내체육관 농구 관람 또한 귀한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작년 배구관람과 비교해가며 농구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소감문으로, 상감곡으로 시로 표현하는 다양한 사후활동을 실시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며 100% 만족도 평가를 하였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한 이번 교육활동은 모두에게 소중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장은

자 학부모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이곳 용산중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또한 내가 용산중학교 학부모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김희성 학생회장은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부모님, 선생님, 지역민)들과 함께여서 마음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경숙 교장은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음이 마음 씀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거듭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남국제교육원, 우리 손으로 이끄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전남국제교육원은 11월 15일 224 강의실에서 도내 중등영어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JLP 중등영어교사 6개월 심화연수 금요특강(Friday Special Lecture)을 마지막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하반기 금요특강은 하반기 6개월 심화연수 교육과정 속에 운영하였다. 지난 9월 20일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주제로 경기 서정고 수석교사 강혜정, 10월 25일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여수충무고

교사 박용성을,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실제'를 주제로 전라남도교육청 최관현 과학교사를 초청하여 특강 형태로 운영하면서 전남 관내의 희망하는 영어교사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이번 금요특강은 전남 영어교사들의 영어수업 방법 개선 및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송지호 신은호 교사는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추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2020년도 우수 수업교사로 정평이 나있는 강사들을 초빙할 예정이일이라고 말했다.

"독감 예방 주사 11월까지 접종하세요"

생후 6개월~12세 이하 무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7일 '매년 11월 첫째 주 이후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니 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이

리인들의 독감으로 부터의 건강관리를 위해 조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기능기관은 (<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독감(인플루엔자)의 증상은 고열(38°C~40°C), 마른 기침, 인후

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 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이며,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위생 관리(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한 면역력 강화하기, 실내 습도 관리,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등의 독감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